

조계종 개혁 10년 '미지근'

불교 자주화 긍정 52%, 청정승단 구현엔 16%
 시급한 과제, 출가정신 회복·적극적 실행 등

'3·29개혁' 10주년
 불교계 지도자 50명
 본지 전화 설문 조사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불만족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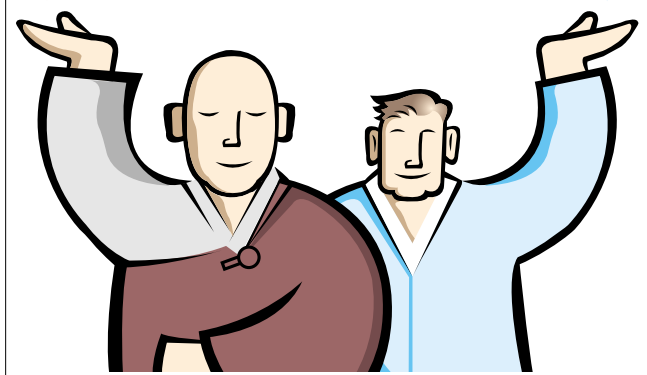
불교계 지도자들은 조계종의 개혁 10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또 승가의 식개혁과 청정승단 구현 등을 시급히 '개혁' 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1994년 3월,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반대로 촉발된 조계종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종단 개혁, 꼭 10년이 지난 2004년 3월, 조계종이 이뤄낸 개혁 성과에 대해 불교계 지도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조계종 개혁 10년을 맞아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승·재가 각 25명씩 50명을 대상으로 한 '개혁 10년 평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설문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면접 및 전화 인터뷰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94년 이후 조계종이 내세운 종단 개혁 5대 실천 이념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불교 자주화'와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법구현' '종단 운영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

의식개혁(출가정신 회복)	24%	소극적 실행활동	26%
청정승단 구현	18%	체계적 교육	20%
수행풍토 확립	16%	종교성 회복	14%
재정투명화	10%	기복신앙	8%



민주화' '청정 승단 구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항목별로 보면 '불교 자주화'와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52%와 68%였다. 그러나 나머지 세 항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법구현' 36%, '종단운영 민주화' 44%, '청정승단 구현' 16%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승단 구현'의 경우 '그저 그렇다' 50%, '부정적

다' 34%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그저 그렇다'를 선택해 실질적인 부정적 응답은 84%인 셈이다. 이같은 응답 형태는 다른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승가와 재가별 응답을 비교하면 '종단운영 민주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재가보다 높았다. 승가가

'종단운영 민주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높은 것은 인사문제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불만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응답자의 62%는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제도개혁 보다는 의식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출가자가 안고 있는 시급한 개혁과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출가정신 회복'(2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청정승단구현(18%)·수행풍토 확립(16%)·재정투명화(10%)·승려자질향상(8%)·승가교육체계확립(8%) 순이었다.

이외에도 문중·파벌 의식, 권위주의, 사부대중 공동체의식, 승려생활보장제도 등을 개혁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재가자가 안고 있는 시급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실행활동'(2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체계적 교육 미흡(20%)·잡분자로의 자세 부족(14%)·기복신앙(8%) 등도 개혁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활동 부족, 수행 부족, 신도회 침체, 불자로서의 자부심 부족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개혁이 가장 시급한 제도'로는 '선거제도'(2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부대중 참여 기회 마련'(18%) '사찰운영제도'(12%)를 포함해 승가 및 신도 교육체계, 비구니 차별, 종단관리시스템, 주지인사과제도 등이 꼽혔다.

관련기사 4면
 한영우 · 남동우 기자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투표에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에게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간곡한 당부의 말을 했다. 원로 스님들이 종회에서 임정을 밝힌 것은 조계종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사면 개헌' 또 불발

조계종 종회, 찬성 53·반대 21로 부결

내달 1일 임시총회

조계종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또 부결됐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163회 임시총회에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속개된 제162회 임시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찬성 53명, 반대 21명으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가결에 1표가 모자란 것이다.

이날 투표 전에 원로회의 의장도 원 스님과 수석부의장 종산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정 스님의 교지도 있었지만 원로회의 유시도 있었다. 특히 종정 스님이 전화를 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불기 2506(1962)년 통

합종단 출범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중 참회와 개헌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종헌 개정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면·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사면·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 취임을 금지하고,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단서 조항을 만들어 냈다.

이날 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으로 '기초선원'을 '기본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종헌개정안을 찬성 68, 반대 2명으로 가결시키고 폐회했다.

관련기사 2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 현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현대불교신문은
 세계 불교 정보의 '총본산'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신청

- 전화요금 합산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납부 가능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법보시 후원 동참하세요
- 월 구독료 : 5천원
- 구독·법보시 동참 문의

02)737-0090, 02)737-8881



봉축 디자인 자료집 · CD 나와
 바리공주 캐릭터 등 추가

200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디자인 자료집과 연등축제 합창곡·반주곡 CD가 나왔다. 자료집은 아기부처, 천진동자, 팔상도, 바리공주(최우 사진), 심대제자, 동자승, 관음 42수, 심육나한, 사천왕 및 심우도, 팔길상무늬 및 각종문양 등으로 구성됐다. 합창곡·반주곡 CD는 부처님 오신날,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꽃바람 부는 사월초파일 등으로 꾸며졌다. (02)2011-1744-7 남동우 기자



선원장 초청 대법회
 영진 스님
 '모든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3월 28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자비의 보듬금 나눔운동' 12면

마고환의원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마고환의원 ·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 사회복지법인 한국글로벌재단 · 선불교 서울시 서소구 병태동 980-29 Tel 02)587-0001 동양의학박사 성병영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 전문병원으로 거듭납니다.

- 큰 스님들을 위해 아늑한 별도의 치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큰 스님들을 시봉하신 불자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무료로 치료하여 드립니다.

지하법당 약장(접수대) 휴게실 스님 전용치료실 일반치료실

■ 크리닉 안내 척추 전문 크리닉 (2004년형 최신의료기) / 관절염 전문 크리닉 Tractizer 척추, 관절 물리 치료실 Nerve Stimulator(T.E.N.S) 종합중풍 크리닉 Infra Red / 통증 크리닉 Ultra Sonic Therapy / 척추 특수 경락치료 LAPEX - 2000

콘티넨탈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체의학 2004년 수강생 모집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본 평생교육원은 콘티넨탈대학교 의과대학 부설로써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치료와 예방의학의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 가실 분 환영

- 모집인원 : 25명
- 교육기간 : 15주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6시
- 모집과목 : 대체의학
- 수료 후 콘티넨탈 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 수여

공부하는 학생들만 먹는 마고환
 마고환은 세계적 석학들처럼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두뇌에 좋은 안료입니다. 마고환이야말로 잠치고 있는 80%의 뇌를 130%의 뇌로 가동시키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고환은 뇌 신경세포에 좋은 성분만을 공급하는 안료입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은 밤낮으로 공부하는 피로가 쌓이고,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몸 전체의 신진대사기능과 뇌 신경세포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고환은 장수의 안정과 체력을 돕는 작용으로 지구력을 증가시켜 수명의 대뇌에 전체적 기억력, 암기력, 논리력, 수리력 등으로 뇌를 감미롭게 발달시키는 안료입니다.